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존제)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뿜어라 여겨라.

## 참사람을 만나자! 참사람이 되자!

“대두목에게는 이윤의 도수와 문왕의 도수가 붙어 있다(강증산 말씀)”

“성경신(誠敬信) 석자로 닦으면서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사람을 만나리라(도전11:277)” 성이란 정성을 말한다. 경이란 공경함이나 누구든지(삼라만상을 다 포함) 내 몸처럼 여기고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을 뜻한다. 신은 믿고 맡김이니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 연후에 참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

### 참나를 찾는 사람은?

“참나를 찾아라. 진아(眞我)를 찾아라.”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참나 진아를 찾는 사람, 참나 진아를 회복한 사람이 참사람 진인이다.

그렇다면 참나 진아란 무엇일까? ‘단군세기 서’에 “(참나)진아는 一神(一神)居之(일신유거지궁)이라.”라고 하였다. 진아는 ‘하나님이 거하는 궁’이라는 의미이다. 참사람이란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나님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이 좌정하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좀 더 분석한다면 ‘참나를 찾아라’라는 말은 현재의 나는 ‘거짓 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니 거짓 나인 현재의 나를 죽여버리면 자연히 참나가 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니 이를 두고 ‘참나를 찾았다. 나아가서 참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참나 진아가 일신유거지궁이면 거짓 나(현재의 나)인 가(假我)는 마신유거지궁이라는 말이 된 즉 현재의 나인 거짓 나는 바로 마귀가 거하는 궁이요 결국 현재의 나인 거짓 나는 마귀라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나인 가(假我)가 마귀이니 ‘황상 나를 버려라.’라고 유불선 등 모든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 물아생망이면 불로불사. 또는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것이 전부 나라의 것이 없어야 도통이요 불로불사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구한말의 선각자 강증산 선생이 천지공사를 끝냈다고 선언했을 때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서서 천지개벽하기를 청하였으나 ‘사람들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마지막 사람을 대두목이라 하였고 대두목은 대인이며 대인은 관 밖에서 나오며 또한 구원의 법방은 관 밖에 있다고 한 바 있다. 증산 선생 자신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증산선생이 말한 핵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자.

격양유록에 “정도령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해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계룡



중화경(中和經) 제81장 미륵출세(彌勒出世) 佛日出時에(불일출시) 降法雨露(강법우로)하리니

은 非山名이라는 글이 있다. 계룡은 어떤 산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도령 즉 하나님이 좌정하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와 통으로 두 사람을 표현했는데 역철학에서 손패는 계(峴)요, 장녀를 의미하고, 진패는 통(洞)이요, 장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격양유록에서는 손진 계룡이라 하고 또한 계룡백석이라고 하였다. 계룡 즉 두 사람이 백석 즉 흰돌(素砂)이라는 곳에서 천지공사를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 대두목과 미륵불의 출현시기를 알아보자. 석기는 3천 년 도수(정확히는 3007년)를 맡았기 때문에 석기의 도수가 끝나기 전에는 미륵불이 나올 수 없다. 북방불기로서 석기는 갑인생이니 계축년(1973년)은 불기 3000년, 경신년(1980년)은 불기 3007년이다. 북방불기 3007년인 1980년이 되어야 미륵불이 나오게 된다. 미륵불은 미래불이다. 양피로 오시는 부처님으로 신미생이다. 미래경에서도 3000년 만에 피는 우담바라꽃에 대한 얘기가 있다. 단순히 꽃 이야기 아니라 미륵불을 상징한다.

증산 선생은 두 사람 중 마지막 사람을 대두목이라 칭한 바 있다. “대두목은 관 밖에서 나온다.” 또한 “구원의 법방은 관 밖에 있다(도전7:39)”고 한다. 관 밖에서 나오는 대두목이 관 밖에 있는 구원의 법방을 들고 나온다면 바로 대두목이 구세주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두목이 바로 미륵불이요 메시야이며 구세주하나님이요, 정도령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방불기 3007년인 1980년 무극대도를 완성하신 분이 미륵불이며 대두목이 되는 것이다.

### 이윤의 도수와 문왕의 도수

증산선생은 “대두목에게는 이윤의 도수와 문왕의 도수가 붙어 있다”고 하였

다. 이윤의 도수란 ‘五十而之四十九年之非(오십이지사십구년지비)’를 말한다. 이윤은 한 때 노에 신봉이기도 하고 요리사이기도 했던 사람으로 중국 하나라 마지막 왕 폭군인 걸왕을 49년 섬겼으나 나이 오십에 성탕과 한 마음이 되어 걸을 멀하고 성탕을 임금으로 받들어 상나라를 건국했던 것이다. 즉 대두목은 50세에 대도통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백석을 죽음으로 돌아가는 폭군 걸왕을 마귀로 비유하고, 그 마귀를 죽여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성군이 되는 성탕을 하나님으로 비유한 것으로 현재의 나(거짓 나-마귀)를 죽여 없애고 참나 진아(하나님)가 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과 도통을 나타냄이요, 참사람 진인이 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문왕의 도수란 중국 은나라 마지막 폭군 주왕의 핍박을 받아 당시에 이미 성인이었던 세간의 소문이 났던 문왕을 우리라는 곳에 7년 동안 감금 유배시킨 고사를 말하는데 대두목(구세주하나님 미륵불 정도령)은 7년 동안 옥고를 치른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만법전 국생가에는 “문왕도수 칠년옥고”라 하였다. 참사람 진인(대두목)의 7년옥고는 “사람이 죽어서 천당간다.”는 마귀의 논리를 믿는 가짜 구세주를 따르는 무리들의 만행이다.

### 천지개벽은 이기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대행자가 없다

관 밖은 무엇이든 관 안은 무엇을 말하는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을 관 밖(신천지)이라 하고 썩고 죽는 세상(죄악세상)을 관 안(구천지)이라 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마귀)이 이김(마귀를 이기신 생명의 하나

님)에 삼킴 바 되리라(고린도전서 15:54)” 썩고 죽는 세상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으로 뒤집는 것이 천지개벽이며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지 대행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대행자 운운은 꾸며낸 이야기이다. 사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좌정하신 분을 증산선생은 대두목으로 표현하였으니 그분이 바로 미륵불이요 정도령이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받드는 성인, 현인들도 인간으로서의 높은 경지에 올라갔지만 죽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즉 천지개벽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로해인을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만이 감로해인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증산선생이 말한 관 밖에 있는 구원의 법방은 바로 감로해인이다.(중화경: 佛日出時에 降法雨露하리니 世間眼目이 今茲始開라.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에 감로해인을 내리시니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이제야 열리는구나.) 참사람(이기신 하나님 미륵불 정도령)이 내려주시는 감로해인을 매일 받아먹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면 죽을 없는 천당 극락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감로해인을 매일 받으려면

그럼 감로해인을 매일 받으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세상에 거저 되는 일은 없다. 노력에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 차츰 나라는 마귀가 약해지고 마침내 죽어 없어질 것이다. 노력이라는 한자가 努力(노노)로 되어있는데 이는 종의 종이 되어 나를 죽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기를 쓰고 애를 써서 또 힘을 다하는 것이 노력의 뜻이 아닌가 한다. 종이란 본래 내 생가, 내 주장, 내 판단, 내 감정을 내세울 수 없고 다만 주인의 명령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인은 우주의 주인공이신 참사람 진인이요, 이기신 하나님(미륵불 정도령)이다. 그분의 가르침대로만 따르면 그뿐인 것이다.

송구영신시절, 구천지가 가고 신천지를 맞이하는 우주적 시간대이다. 새해 정유년을 맞아 붉은 닭이 이렇게 소리친다. “도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도인이려면 이윤의 도수와 문왕의 도수가 붙어 있으며 북방불기 3007년인 1980년 경신년에 신미생으로서 50세 되는 그 해 무극대도를 완성하시고 마침내 감로해인을 완성하여 임의용직하시니 분, 우주의 주인공이신 참사람을 꼭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사람을 본받아 참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박명하 승사 myunghpark23@naver.com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98)  
“잠자리를 잘못 옮기면 죽는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 잠자던 방에서 잠을 자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죄 짓는 정도에 따라 그 독소물질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는고로, 다른 집에서 혹 잘못 자게 되면 그곳의 약한 세력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방에는 천정에도 벽에도 그 사람의 영의 물질이 묻어 있는데, 그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죽은 조상의 영까지 묻어 있는고

로 귀신 단지 속에서 잠을 자게 되니까 잠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의 죽은 사람의 영은 자신의 영과 통하니 내 방에서는 잠이 잘 오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잘못 옮기면 죽는 수가 있는고로, 허락을 받고 잠자리를 옮기라고 하는 것 밖에도 그 사람의 영의 물질이 묻어 있는데, 그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죽은 조상의 영까지 묻어 있는고

## 이슬성신절의 유래

이슬성신은 하나님의 성신(聖神)을 말한다. 그런데 성신이면 그냥 성신이 왜 이슬성신이라고 할까? 성신이 내리는 모습이 이슬(露)과 같다고 하여 이슬성신이라고 부른다. 성경도 성신이 이슬과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혈분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3)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호 14:5)”

이러한 이슬성신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슬성신을 내린 분은 역사상 두 분, 박태선 장로님과 조희성 구세주님밖에 없는데 두 분 다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존재이므로 그들은 이슬 은혜를 구경조차 못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슬성신 은혜를 처음 내리기 시작한 분이 박태선 장로님인데, 박 장로님은 1955년에 갑자기 나타나 ‘불의 사자’라고 불리며,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곱사등을 펴고, 잠님의 눈을 띄우고, 병어리의 입을 열며, 기사이적을 행하여 무려 150만 명의 신도를 모으는 등 전후후무한 종교 역사(史)를 펼쳤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던 박 장로님은 1980년 후반부터 돌연 예수를 마귀새끼라고 치기 시작했고, 12월 25일에 기념했던 성탄절까지 없애버렸다. 예수가 구세주가 아닌 마귀새끼이므로 전도관에서는 성탄절을 경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당시 박태선 장로님의 가장 신앙촌에서 재무담당을 했던 윤봉수 승리제단 신도회장의 증언이다. “어느 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영모님(박태선 장로)이 회회에 나오시더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낼 수 없고, 이슬성신절로 지내야 되는데 날짜를 25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날로 할지 의논해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의논을 하였는데 당시 청년연합회장 모 씨가 제안한 1월 1일 안(案)이 채택되었고, 그에 따라 이듬해인 1981년 1월 1일에 첫 이슬성신절 경축예배를 보게 되었다.”

이슬성신절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것인데 천부교(전도관의 후신)에서는 이슬성신절을 5월에 지키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우기고 있으니 참 우스운 일이다. 이슬성신절은 1981년 새해 이슬성신 은혜가 역사하시는 첫날 전도관에서 시작했고, 그 이후 승리제단에서 2회부터 매년 첫날을 이슬성신절로 지키고 있다. 올해가 37회가 된다.\*

### 인사발령

본부제단 2지역 부지역장: 안병헌 승사  
부산제단 사무승사: 김준응 승사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 본부제단 12월 시상식

5지역, 8개월 만에 1등



5지역 강춘희 권사님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의 2016년 12월 활동에 대한 시상식 3일 구역장회의 시간에 있었다. 2016년 12월의 성적은 오랜만에 5지역이 1등, 2지역이 2등을 차지하였으며 저력의 4지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개인성적으로는 박인숙이 1등을, 김건균이 2등을, 김인숙 집사가 3등을 각각

차지하였다. 박인숙은 월등한 성적으로 개인 1등을 차지하여 모두의 격려를 한 몸에 받았으며, 김건균은 지난달 개인 1등에 이어 이번 달에는 개인 2등을 차지하여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12월의 최대의 이번은 3지역이 등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1년 내 단 한 번도 시상 권에서 벗어나

지 않았던 3지역이 이번에는 등위로 밀려나가고 약세일 것 같은 5지역과 2지역이 나란히 1,2등을 차지하는 이번을 내었다.

윤봉수 회장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주님의 역사가 앞당겨진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도 좋아지게 된다. 지금은 전도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다. 우리가 움직이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시간에 늦지 말고 자유율법 실천운동 열심히 하자.”고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2등: 2지역(지역장: 강중태, 지회장: 김혜선)
- 3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구역 1등: 6구역
- 2등: 49구역(구역장: 조건우)
- 3등: 25구역(구역장: 정은경)
- \*개인 1등: 박인숙
- 2등: 김건균
- 3등: 김인숙 집사\*

## 우·리·역·사·바·로·잡·기·캠·페·인

### 승리제단 우리역사 바로잡기 운동본부

(연락처: 032-343-9981, 010-5583-4938)

**왜, 단군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혀야만 하는가?**

**뒤틀린 인류사를 바로 잡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왜, 단군민족은 위대한 민족인가?**

**구세주를 낳은 민족이요, 인류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